열왕기하 8.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과 아람의 왕이 된 '하사엘' (왕하 8 장 1 – 29 절)

들어가기

본 장은 7 년간의 기근을 피해 블레셋으로 떠났던 수넴 여인이 7 년만에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된 이야기와 '하사엘'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람의 왕이 된 사건과 유다 왕 '여호람'과 '아하시야'가 행한 악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본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, 더욱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1. 7 년만에 땅을 되찾게 된 수넴 여인 (1-6 절)

1) '엘리사'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7 년간의 기근을 내리실 것이니 그 동안 가족이 함께 피해 있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. (1-3 절)

- 여기서 먼저 2 가지만 생각해 보자!
  ①. '엘리사'는 왜 이 사실을 수넴 여인에게 미리 알려 기근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을까?
  –
  –
  ②. '엘리사'의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?
  – 2 절 주목하면!
  '.., **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**..,'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7 년을 지냄!
  – 곧 그녀는 '엘리사'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, 즉시 움직였다는 것!
  – 떠나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!
  – 그러나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음!!

- '엘리사'의 말대로 7 년간 블레셋 땅에서 지내던 수넴 여인은 7 년이 지나자 다시 돌아와 자신의 땅과 집을 되찾기 위해 왕을 찾아 갔습니다. (3 절)
  - 아마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'엘리사'의 말에 순종해 집과 땅을 두고 떠나자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집과 땅을 차지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듯..
  - 그런데 그녀가 돌아와 이를 되찾기 위해 왕에게 찾아간 것을 볼 때, 아마도 그녀는 7 년이 지나면 기근이 멈출 것이라 믿고,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 집과 땅을 처분하지 않았던 듯!

2) 이 때에 때마침 왕은 '엘리사'의 사환 '게하시'를 통해 '엘리사'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. (4-6 절)

- '게하시'를 통해 지금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청하는 여인이 '엘리사'가 살린 아들의 어머니란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
  - 그녀를 위해 한 관리를 따로 임명하여 그녀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은 물론이고, 그녀가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땅에서 수확된 모든 소출을 다 돌려 받도록 함!
  -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?
  ->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수넴 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!!

2. 아람의 왕이 된 '하사엘' (7-15 절)

1) 아람 왕 '벤하닷'은 '엘리사'가 다메섹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, 자신의 신하 '하사엘'을 보내어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. (7-9 절)

- 특별히 우리는 8-9 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전과는 달라진 '벤하닷'의 모습은 보게 됨!
  ①. 8 절: '벤하닷'은 '엘리사'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'여호와'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함!!
  ②. 9 절: 이때 '벤하닷'은 수많은 예물을 '엘리사'에게 받침!
  - '…,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…, 낙타 사십 마리'에 싣고 감!
  - 또한 '하사엘'이 '엘리사'를 만났을 때, '벤하닷'을 **'당신의 아들'**이라고 칭함!

- 곧 질병으로 인해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'벤하닷'을 보게 됨!
  - 그러나 당시 '벤하닷'이 '나아만' 장군처럼 하나님을 믿고 개종했다고는 볼 수 없을 듯..,

2) 그럼 '벤하닷'의 병에 대해 묻는 '하사엘'에게 '엘리사'는 어떤 답을 주었는가? (10 절)

- '벤하닷'의 병은 분명 나을 것이지만,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전함!
  - 이 대답은 조금은 모순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'벤하닷'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, 다른 이유로 분명히 죽게 될 것이란 사실을 예언한 것!

- 참고로 한 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, '벤하닷'은 죽음의 그늘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, 그저 병석에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만 알아보고 있다'고 지적!

3) '벤하닷'의 최후에 대한 답을 전해 준 '엘리사'는 '하사엘'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. (11-13 절)

- 그럼 왜 '엘리사'는 '하사엘'을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나요?
  - 장차 '하사엘'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악행들을 알게 되었으므로..
    - '하사엘'이 이스라엘 성들에 불을 지르고, 장정을 칼로 죽이고, 어린 아이를 메치고, 아이 밴 부녀를 가를 것!! (12 절)
  - 곧 하나님께서 '하사엘'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고통과 징계를 내리실지를 환상을 통해 보면서, 아파하며 울었던 것!!
    -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, 바울 사도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었듯이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성도들이 되자.

- 그럼 이와 같은 '엘리사'의 말을 전해 들은 '하사엘'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 (13 절)
  - '하사엘'은 자신을 '당신의 개 같은 종'이라 칭하면서, '어찌 그와 같은 큰 일을 하겠냐'고 놀라움을 표했음!
  - 원어적 의미로는 '개보다도 나을 것 없는 나 같이 작은 존재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?' 가 좀 더 좋은 해석일 듯!

- CEV. "How could I ever do anything like that?", "I'm only a servant and don't have that kind of power."

- 그러자 '엘리사'는 하나님께서 '하사엘'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게 하셨다고 답함!
  - 참고로 열왕기상 19 장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'엘리야'에게 '하사엘'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음!
  - 따라서 만일 '엘리야'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'하사엘'에게 기름을 부었다면, 이제 '하사엘'은 '엘리사'를 통해 그 예언의 확답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음!!

4) 그럼 '엘리사'를 통해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란 예언을 받게 된 혹은 확답을 듣게 된 '하사엘'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? (14-15 절)

▪ 먼저 '벤하닷'에게 '엘리사'가 전해준 말을 전달 함!
- 그런데! 14 절을 주목하면, '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'이라고만 전하고, 반드시 죽을 것이란 예언은 전하지 않았음!!
- 여기서 '하사엘'의 악함이 들어나기 시작함!

▪ 다음 날 '벤하닷'의 이불에 물을 적셔 그의 얼굴에 덮어 살해함!
- 이것은 평소 지병을 앓던 '벤하닷'이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살인의 흔적일 남기지 않고 죽인 것!!
- 이는 곧 '하사엘'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장면.

▪ 참고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'하사엘'이 '벤하닷'을 죽이고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오해하면 안됨!
- 하나님은 '벤하닷'이 병은 낫겠으나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, '하사엘'이 그의 뒤를 이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만 하셨음!!

3. 유다 제 5 대왕 '여호람'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. (16-24 절)

1) '여호람'은 32 세에 왕이 되어 8 년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. (16-17 절)

▪ 우선 16 절을 주목..
'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오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,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'
- 이는 곧 '여호사밧'이 유다의 왕으로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아들 '여호람'이 통치에 참여 했다는 것!
- 그러다 32 살이 되었을 때, 공식적으로 즉위했다는 것!

2) 그런데 '여호람'은 조상 '다윗'의 길을 따르지 않고,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고, '아합'의 집과 같이 되었습니다. (18-19 절)

- 그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'아합'의 집과 같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?
  -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'여로보암'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, 자신의 왕권 강화에만 치중하여 형제들을 죽이고(역대하 21 장),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'여호람'의 죄를 의미한 것!
  - 그런데 성경은 '여호람'이 이처럼 범죄하게 된 이유는 '아합'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!
    - 참고로 유대인들은 '여호람'의 아내, '아합'의 딸 '아달랴'를 제 2 의 '이세벨'이라고 칭함.

- 하나님은 '여호람'이 지속해서 악을 행하였지만, 유다를 징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! (19 절)
  - 그 이유는 조상 '다윗'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!!
  - 여기서 '등불'은 하나님께서 '다윗'과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의미! (ex: 삼하 7 장 12-17 절)

3) '여호람'이 통치하던 때,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며 왕을 세우고 독립하였습니다. (20-21 절)

- 이때 '여호람'은 병력을 이끌고 에돔을 치고자 출정하였으나, 밤중에 에돔 군사들에게 포위 당하였다 극적으로 빠져 나왔고, '여호람'의 군사들은 도망하여 각각 장막으로 돌아감.
  - 이는 곧 하나님을 떠난 '여호람'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!

4) 이로 인해 유다의 권세가 약해지자 립나도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하였습니다. (22 절),

5) 이후 '여호람'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'아하시야'가 유다의 6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. (23-24 절)

4. '아하시야'는 22 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. (25-29 절)

1) '아하시야'는 1 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.

2) 그럼 열왕기서가 기록하는 1 년동안의 그의 업적은 무엇인가요?

①. 그는 '아합'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.
②. 그는 '아합'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'요람, (여호람)'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'하사엘'과 싸울 때 함께 참전함.
③. 그는 '요람'이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'이스르엘'에서 머무르자 병문안 하기 위해 찾아감.

- 그런데 참고로 이 무렵 북이스라엘의 장군 '예후'가 반란을 일으켜 '여호람'을 죽이게 되면서, '아하시야'도 사마리아에게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됨. (열왕기하 9 장/역대하 22 장)
- 결국 성경이 기록하는 유다 왕 '아하시야'는 북이스라엘 왕 '요람'만 따라다니다 죽은 왕이 됨!!
  - 시편 1 편이 가르치듯, 성도는 항상 악인의 무리를 떠나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할 것!

5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?

6. 중보기도 나눔